



정교회주보

제2559호

2026년 1월 11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다르소는 지중해에서 약 20km 떨어진 소아시아의 내륙 도시이다. 사진은 12세기에 다르소에 지어진 성 바울로 성당이다.

신현 축일 다음 주일

성 테오도시오스 수도원장

(제6조 • 조과 복음 9)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신현 축일 응송 155
- 제6조 부활 찬양송 82
- 신현 축일 찬양송 155
- 성당 찬양송
- 신현 축일 시가송 155
- 사도경 : 고린토 후 4,6~15 (봉)248
- 복음경 : 마태오 4,12~17 158
- 성모송 (신현 축일) 157
- 영성체성혈송 (신현 축일) ... 157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다르소의 사울

사도 바울로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갈리기아의 다르소 출신의 유대인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사도행전 21,39)라고 말할 만큼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컸다. 당시 다르소는 무역과 문화 교류가 활발하고, 학문과 교육으로도 이름난 도시였다.

사울(바울로의 유다식 이름)은 이곳에서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자랐고, 훗날 예루살렘에서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엄격한 유대교 교육을 받았다.(사도행전 22,3 참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이는 당시 사회에서 매우 큰 특권이었다.(사도행전 22,28 참조) 이렇게 그는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 그리스 문화, 로마 시민의 권리와 지위를 함께 경험하며 성장했다.

다르소에서 보낸 시절은 결코 우연처럼 흘러간 시간이 아니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

인처럼 다가갈 수 있었던 그의 유연함과 폭넓은 시야는 바로 이곳에서 길러졌다.(고린토 전 9,20-22 참조) 하느님께서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이 젊은 사울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차근차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다.

넓은 성서의 축복

우종현 안토니오스 대신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고(故)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께서 서울 성당에 계시던 시절, 당신의 침실 작은 탁자 위에는 인자하게 미소 짓는 어머니의 흑백 사진과 넓은 자줏빛 가죽 성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쁜 교회 업무로 대주교님께서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셨지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하지만 낯선 타지에서 외로움과 선교 사명의 무게를 견디게 한 것은 바로 그 넓은 성서 속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서는 표지와 내지가 닳아 보풀이 일 정도로, 얼마나 자주 읽으셨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위로와 자비가 고스란히 스며있는 듯했습니다. 그 성서를 바라볼 때마다 숙연해지던 기억이 납니다.

성서를 읽는 것은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숨 쉬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깊은 호흡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흔들림 없는 나침반이 되고, 시편의 찬양은 메마른 가슴을 울리는 노래가 되며, 바울로 사도의 권면은 영혼을 향한 따스한 격려가 되어줍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영적 산소입니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성서가 책장 한구석에서 먼지만 쌓인 채 잊혀 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늘 바쁘다고 말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분주함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영혼의 공허함과 목마름으로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서를 펼치면 놀랍게도 깊었던 갈증이 서서히 해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생명력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요한 4,14)라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성서를 멀리하셨던 분들도 다시 가까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잠시 성서를 펼쳐 보십시오. 단 몇 구절이라도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지친 어깨 위에 따스한 위로가 머물고, 메마른 영혼에 단비가 내리며,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주교님의 손때 묻은 그 넓은 성서처럼, 우리의 성서도 닳고 해질 때 비로소 하느님 말씀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계시는 분

에밀리아노스 수도원장*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역임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하느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분의 현존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혹은 그 현존을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하느님께서는 실제로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에게는 하느님이 실제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둠과 공포의 순간들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실제로 계십니다. 내가 실패자처럼 느껴질 때, 나의 모든 노력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 내 삶이 헛되이 흘러가 버린 것처럼 여겨질 때도,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분은 나를 위해 거기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능력이나 수용력, 이해력과 무관하게 실제로 계십니다. 나는 하느님을 작다고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나는 하느님이 듣지 않으신

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 자신을 전적으로 나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실패할 가능성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곧, '실제로 계시는 분'(출애굽기 3,14)과의 관계를 내가 스스로 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나의 존재를 그대로 바라보시며 지나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의 신비여! 나의 의지나 행동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이로다!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 영광의 하느님, 능력의 하느님, 그분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과 예언자들, 성인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작고, 죄 많고, 궁핍하며, 가치 없는 존재일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에게 하느님으로 계십니다.”

* 에밀리아노스 수도원장(1934-2019, 아토스 성산 시모노페트라 수도원)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17일(토) 축일을 맞이하는 우종현 안토니오스 대신부님과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님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성인의 중보로 항상 건강하셔서 주님의 양 떼를 잘 이끌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1월 17일(토)

성 안토니오스 대수도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카자흐스탄인 청년 세먀킨 다비드(Shemyakin David) 교우가 오랜 투병 끝에 12월 31일 안식하여, 로만 대신부 집전으로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21세의 젊은 나이에 안식한 고인이 주님 안에서 평온한 안식을 누리길 기원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 구세주 변모 수도원 휴원 안내

아가티 수녀가 그리스 수도원으로 출국하여 당분간 휴원합니다. 귀국은 3월 11일 예정입니다.

알림

■ 대교구 의회 공고

1월 18일(주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으로 '제22회 대교구 의회'를 개최합니다. 1부에는 세례신자, 예비신자 모두 참석할 수 있습니다. 2부에는 의안 결의와 발언권을 가진 의회 의원들만 참석합니다.

참석하시는 일반 신자들께서는 대교구 사업과 교회 발전 방향에 대해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줌 링크 주소는 나중에 각 성당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 신자 총회 공고

오늘 서울, 부산, 인천, 춘천, 울산 성당의 2026회계년도 정기 신자 총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결산과 새해 예산, 영적 사업,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신자는 꼭 참석해 주십시오.

■ 대교구 겨울 수련회 안내

대교구 겨울 수련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초, 중, 고등학생 : 1/19(월)-23(금) (참가비 12만원)
- 신데즈모스(예비신자 포함) : 1/23(금)-25(일) (참가비 6만원)
- 장소 :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

■ 전주 성모안식 성당

지난 12월 24일, 죠지와 배마리 마리아의 아들 피터의 40일 입당식과 세례성사가 정종혁 일라리온 신부의 집전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지난 주말(3-4일)에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께서 사목 방문하여, 토요일 대만과부터 주일 성찬예배까지 일라리온 신부와 함께 집전하셨습니다. 또한 성찬예배 전에 김용선 파이시오스 청년의 견진성사를 집전하시고 사랑의 오찬과 신자총회까지 함께하며 영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새로 정교인이 된 피터와 파이시오스가 주님의 은총으로 마지막까지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